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시원한 예배 : 절전을 위해 7,8월에는 다소 간편한 차림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신앙실천 : 날이 더워집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도입니다. 과도한 냉방은 삼가고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6:1-5 / 시 24	2부	잠언 24:15-20
예배	엡 1:3-14 / 막 6:14-29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이은경 전정현 김정주 김종락

다음 주 식당봉사 : 이형숙 곽혜자 박경원 이명희 강영님 이국노 박호규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6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짓누르는 어두운 기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드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호흡하며 천천히 가야할 길을 가게 하시고, 어둠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과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 철조망이 쳐진 국경과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품을 여시고 기댈 곳이 되어 주십시오. 국제사회가 더욱 지속적이고 배려 깊은 대안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5:17 인도자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함께

♣ 성경봉독 1. 삼하5:1-5,9-10 고후12:2-10 막6:1-13 서효진 선생
 11. 신16:9-12 강세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주 너를 지키리 찬양대

말 씬 1. 생의 곤경을 넘어 김기석 목사
 11. 함께 기뻐한다는 것 김기석 목사

거뭇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세기 이소애 강순배 권미숙 김경혜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나름
 김문주 김애경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정민 이해령
 김정진 김혜정 김정화 김정훈 이진영 김주영 노우영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해리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현주 노성희 김만균 박규석 박경선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병구 김인순 박상욱 방문성 박해경 방 민 배삼순
 배재경 이수정 송형운 하미림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해정 심상숙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옥 이성범 권현숙 이에서
 이용현 이우상 이계월 이우엘 이우원 옥귀희 이유진 이재문 이주경 이진경
 한양미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임승동 백해숙 임주빈 최현옥
 장동훈 정은선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연희 조문규 진정숙 조병무 송양진
 주경진 이윤정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추현영 하정석
 이명희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허성호 진은혜 홍소형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현성 이오복 무명

감사헌금

강석남 강순배 강신철 이해경 권미숙 김태정 박숙미 방문객 신진식 변해정
 안길상 이형숙 이은혜 이지애 참빛찬양단 최옥자 무명20

생일감사헌금

김근종 정옥영 김현주 박병구 김인순 이범석 류정옥

녹색꿈헌금

김향자 이승지 무명3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 해 숙	박 성 희	쉽	쉽
안 디 옥	신 진 식	최 경 미		
가 나 안	장 영 숙	신 영 신		
베 다 니	박 흥 재	박 흥 재		
시 온	권 미 숙	박 미 영		
에 베 소	김 금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곽 권 희	윤 수 진		
가버나움	안 흥 숙	오 현 정		
나 사 렛	김 경 혜	홍 춘 숙		
다 메 섹	박 해 경	박 해 경		
두란노1	김 재 흥	오 자 영		
두란노2	김 재 흥	송 형 운		
두란노3	이 범 석	이 진 영		
두란노4	이 범 석	곽 상 준		
두란노5	신 진 식	이 오 복		

■ 마음으로 읽는 글

노루

마음이 궁벽한 곳으로 나를 내몰아
 산속에서 자주 길을 잃었다
 달리다보면 손은 수시로 빨로 변하고
 발에는 단단한 발굽이 돋았다
 발굽 아래 무엇이 깨져나가는지도 모른 채
 밤길을 달리다 문득 멈추어선 것은
 그 눈동자 앞이었다
 겁에 질린 초식동물의 눈빛,
 길을 잃어버리기는 나와 다르지 않았다
 헤드라이트에 놀라 주춤거리다가
 도로 위에 쓰러진 노루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다
 저 어리디어린 노루는
 산속에 두고 온 스무 살의 나인지도,
 말없이 사라진 사람인지도,
 언젠가 낳아 함부로 버린 사랑인지도 모른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의 일부가 되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개의 빨과 네 개의 발굽으로
 불행의 속도를 추월할 수는 없다 해도
 어서 일어나 남은 길을 건너라
 저 울창한 달래와 머루 덩굴 속으로 사라져라
 누구도 너를 찾아낼 수 없도록

- 나희덕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과 기쁨을 나누며 사십시오.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을 돕는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나와 내 가족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강의: 이범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장성호 선생 이은주 집사

7	영접위원	하현철 윤성종 주경진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헌금위원	윤석철 정경례

동물들이 사라지면...

북태평양 연안에 살던 스콧시 인디언 족의 추장 시애틀은 유럽에서 건너온 정착민들과 1854년에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동물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아마 유럽 출신 정착민들은 이런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우리는 인간 이외의 동반자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

삼림 감독관 엘도 레오폴드는 애리조나 주에서 사냥을 하던 중 새끼를 가진 어미 늑대를 총으로 쏘았다. 늑대에게 다가간 그는 “죽어가는 어미 늑대의 눈에 나타난 격렬한 초록빛 불빛”을 때맞추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 순간과 그 이후로 나는 그 눈으로부터 - 그 어미 늑대와 산들만이 알고 있었던 새로운 어떤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인간과 자연세계의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사건을 통해 얻은 성찰은 이전의 미국인들의 삶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를 낳게 했다. 레오폴드는 그것을 “땅의 윤리”라고 불렀다. 그의 기본적인 주장은 단순하다. 곧 “땅의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땅의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그것은 그의 동료 구성원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땅의 공동체 자체를 존중하게 만든다.” ...

땅에 대한 이런 친밀한 감각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자주 걸어 다녔던 지역의 아름다운 들뜰에 매료되었을 때 아주 잘 표현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땅을 구입할 마음을 가졌으나 곧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그 지역의 아름다움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그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소유할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 땅을 누가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는 그 지역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인간 서로 간의 관계와 인간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사용’이란 관점에서 보는 오늘날 서구의 중독된 태도에서부터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인들이 프시케라고 불렀고, 라틴 세계에서는 아니마, 영어권에서는 영혼(소울)으로 번역된 내적 세계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경험적인 기초들을 왜곡시킬까 염려하여 자신들의 연구에서 이 단어를 배제했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실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영속적으로 깃들여 있다. 곧 동물(애니멀)이란 단어는 영혼(아니마)을 가진 존재를 지칭한다. ...

서구 문명의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 하나는 이처럼 다른 존재 양태들 속에 친밀하게 교감하는 능력을 지난 몇 세기 사이에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런 능력이 소멸되어 버렸음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근래의 일이지만 말이다. 어쨌든 이런 결과는 인간의 영적인 측면이 다른 존재 양태들의 소위 영적이지 않은 측면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다고 보는 우리의 문화 전통 속의 더 깊은 성향들에 근거해 있다.

인간을 우월한 존재 양태로 보고 우리 주변의 세계와의 관계 역시 ‘사용’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는 서구 문명에 널리 퍼져 있었다. 우리들은 이제야 비로소 이런 태도로부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이제야 우리 인간이란 존재 양태가 거대한 존재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그냥 하나의 구성 요소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연이 정신에게는 경이로움을, 상상력에는 아름다움을, 정서에는 친밀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처럼 자연이 제공하는 더 큰 교제를 존중할 때만 우리의 존재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야생의 피조물들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애틀 추장이 경고하였던 그런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표식일 수 있는 것이다.